

육개장 계삼탕

여름 음식이 요즘은 사철음식, 명칭도 바뀌어 육계장·삼계탕

육개장과 계삼탕은 여름음식인데, 요즘은 사철 음식이 됐고 명칭도 「육계장」과 「삼계탕」으로 바뀌어졌다.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원 이름인 「육개장」·「계삼탕」

으로 쓰는 데는 한 군데도 없다. 우리 말을 「대중 음식점」 경영자가 함부로 손대고 있다.

『복날에는 개를 고아 자극성있는 조미료를 엮은 이른바 「개장」이란 것을 시식(時食)으로 하여 향촌(鄉村) 여름철의 즐거운 일로 삼았다. 개고기가 식성에 적합하지 않는 자는 쇠고기로서 대신하고 이를 「육(肉)개장」이라 하여 시식을 빠뜨리지 않았다.』(六堂 崔南善·朝鮮常識 風俗篇).



『육개장이란 개고기를 못 먹는 사람들을 위하여 쇠고기를 쓴 것이다』(金和鎭·韓國의 風土와 人物).

「육」이 쇠고기를 칭하는 말임은

육수·육회·육포·육장·육즙 등으로 알 수 있다. 쇠고기국이지만 특별히 고추를 많이 기름에 개어 푼 것은 맵게 하려는 것 외에 주술적 의미(呪術的 意味)도 있다고 한다.

복날 먹는 음식에는 개장 외에 계삼탕(鷄蔘湯)이 있다. 식욕을 돋우고 보양을 하기 위해 암탉에다가 인삼을 넣고 흠뻑 고아 먹는 것이다. 배를 가르고 삼을 넣고는 껴져 나오지 못하게 실로 묶는다. 여름에 개장 먹는 축

보다는 여유있는 집안의 시식이다.

1930년대 초에 서울에 대구탕(大邱湯)이라는 것이 전동(공평동)의 대연관(大連館)이란 음식점에서 처음 팔렸다. 이것은 육개장과 거의 비슷한데 파를 무척 많이 넣은 것이 특색이었다. 대구 사람들의 음식인가 했지만, 그 고장 사람들은 모르는 음식이니 순전히 창안한 음식이요 명칭이었다.

다만 이 대구탕이 여름·겨울 할 것 없이 파는 것이어서 여름에만 육

개장을 먹던 관습을 깼다. 그런데 요즘 일본 음식점에 「대구탕」이 나와 살펴보니 생선 대구로 맑은 장국을 끓인 것이었다.

계삼탕이 「삼계탕」으로 된 것은 인삼이 대중화하고 외국인들이 인삼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자 삼을 위로 놓아 명칭을 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의 고유한 음식의 명칭을 멋대로 바꾸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 (奠雁) 안

木刻 기러기 놓고 新婦집에서 北向再拜
“우리도 기러기와 같이 살자” 意思 표시

전안(奠雁)은 혼인 때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이다. 차일을 치고 병풍을 두르고 큰 상을 놓아 전안청(奠雁廳)이라 일컬었다.

실제 기러기 안고 가는 것은 못 보았고 나무로 깎은 기러기를 쓰는 것

인데 경학원(經學院) 식장에는 상비돼 있고 세물전에서 빌어다 썼다.

기러기는 암·수가 한번 짝지어 살다가 한 놈이 죽으면 다시 짝을 얻지 않는 습성이 있다. 이를 「안불재우(雁不再羈)」라고 한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기러기와 같이 살자』라는 의사 표

시이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에만 강요되는 것이요, 남성은 상처(喪妻)하면 속현(續絃)하는 것이 예사이다. 부부를 금슬(琴瑟)이라는 현악기에 비유해서 한쪽이 죽은 뒤에 끊어진 줄을 잇는다는 뜻인데 여성 쪽이 죽을 때에만 일방적으로 속현이 가능했으니 맹랑한 일이다.

그것은 그렇고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에게 준 다음 신랑이 북쪽을 향해 두 번 절하니, 이는 혼인이 인륜의 대사라 해서 국왕께서 신랑에게 당상관(堂上官)의 관복을 입도록 특별히 허락하셨음에 예를 행하기 시작할 때 먼저 국왕에게 망배(望拜)하는 것이었다(국왕이 존재하지 않던 일제 때에도 북향재배를 했었다

동위상(同牢床)은 부부가 음식을 같이 먹는 상인데, 그 상에 잔을 올리는 것은 양편이 똑같이 천지를 형용해서 소뢰례(小牢禮)를 차려 놓은

등위상이기 때문에 천지신명에게 먼저 고하는 것을 뜻한다.

집사(執事)가 잔을 내려서 신랑·신부가 다 두 잔씩 올리게 함은 황천후토지신(皇天后土之神)에게 올리는 것이고 집사가 잔을 내려서 양편에 권함은 천지신명이 복록을 내리는 음복잔(飲福盞)이다. 이때 신부는 대개 술을 먹지 않고 수모(手母)가 입으로 『호루룩』하여 「음향효과」로 때우게 마련이다.

혼인 전날 봉치(封采의 사투리)를

「함진아비」가 신부집에 이고 간다. 청·홍의 채단이 들어 있는데 복 많은 어른이 함 속을 손으로 더듬어 꺼낸다. 파랑이면 첫아들, 빨강이면 첫

딸을 얻으리라는 미신도 있다. 「함진아비」는 하인이 하는 것이요, 술상이나 돈냥을 얻고 가는 것이언만 요즘은 대학 출신 하인들이 때로 몰려와 돈을 사뭇 강요하는 폐풍이 생겼다.

